

권혜경, 상투적인 일상으로부터의 낯선 체험

김준기(미술평론가)

권혜경의 회화는 일루전에서 출발한다. 그는 브러쉬와 스프레이를 사용해 사물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회화는 넓은 의미의 리얼리즘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이 일반적인 리얼리즘 회화들과 차별하는 지점은 바로 그가 바라보는 재현 대상의 특이점이다. 그는 자신이 만난 일상의 사물들을 그린다. 일상을 담는 예술은 어찌보면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상투성에 가깝다. 그런데도 필자가 그의 일상성이 특이점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일상의 예술에 비해 권혜경의 일상 회화가 같은 체험으로서의 회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권혜경이 의미를 두는 일상은 풍경이나 정물, 또는 인물과 같은 일반적인 재현대상들이 아니라 회화의 주제로 삼기에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는 시시하고 상투적인 것들이면서도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진솔한 자기 이야기들이다. 오늘날의 예술가들, 특히 회화 작업을 주로 하는 예술가들은 천형과도 같은 중압감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은 거대한 서사의 압박과 일상적 미시성의 강박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회화의 위치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떨치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예술가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일인데, 이러한 태도마저도 다수의 예술가들이 취하는 것이어서 대략 상투적인 자기독백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일상성의 회화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체험의 가치에 있다. 예술가는 물론이고 일반인 모두 일상의 체험을 안고 산다. 산다는 것은 체험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가가 일상의 체험을 다루는 데는 나름의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예술가의 체험을 대면하는 관람자와 감성적 공유 지점을 만들면서 공감의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상 담론이 차별화하는 유력한 방법은 낯선 체험을 담아내는 일이다. 상투적인 일상의 사건이나 사물을 낯선 시각으로 재발견하려는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과 서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유학시기의 작업들은 독일의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사물들을 담고 있다. 콘테이너나 배전함 등 자신이 만난 일상의 사물들이다. 그는 낯선 환경에서 만난 일상의 체험들을 풀어 나가는 소재를 사람에서 사물로 전환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낯선 곳에서 그가 체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일상의 사물들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체험적 가치의 발현이며, 스치고 지나가버리곤 하는 흔한 사물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려는 태도이다. 그는 예술이 일상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일상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귀국한 이후의 작업들도 낯섬에 대한 그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투명한 공간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 그는 예술가라는 직업의 특성에 천착해서 실내 공간의 감성을 잡아내는 연작을 하고 있다. 창문이나 벽의 일부를 담거나 공책, 고무대

야 뚜껑이나 나무 널판지, 상자 등을 그것이다. 이 역시 하찮은 것에 가치부여를 하고, 사물의 현상과 구조, 그리고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생각에서 나온 작업들이다. 그가 작업실 내부로부터 조금씩 그 외부로 시선을 돌리며 새로운 체험과 표현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근작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의미한 변화들이다.

권혜경의 회화는 예술가가 처한 환경이 그의 작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독일 유학 이후 한국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산청에 머물면서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의 현지화 과정으로서 유의미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의 최근작들은 특히 산청의 레지던스 공간 실내와 주변부의 일상을 끌고 들어온다는 점에 주목해볼만 하다. 그가 독일의 낯선 환경들로부터 일상의 사물 작업 개념을 도출했듯이, 산청 레지던스에서 만난 일상의 사물들과 연관한 일련의 작업들은 창작의 현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산청에서의 레지던스를 통하여 청춘의 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작업이 산청특정적인 예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술가로서 권혜경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데 매우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낳고 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사건과 사물로부터 특별한 감성을 캐내는 것이 권혜경의 태도라고 볼 때, 그가 처한 삶의 조건, 즉 산청의 레지던스라는 공간에 펼쳐진 일상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선으로 환기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의 근작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권혜경의 태도는 비정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의 삶을 반영한다. 그의 작업에는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체험적 실체들을 대면하는 그의 담담한 시선에 삶과 예술을 불이(不二)로 보는 리얼리스트의 태도가 담겨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상투적인 일상으로부터의 낯선 체험을 끌어내는 예술가이기 때문이다.